

| 특집 | 북극해항로 운항 | 북극해 인프라 | 선박 | 자원개발 | 기후변화 | 국제협력 | 북극정책 | 북극해관광 |

[특집]

한중일의 현재 북극해항로 운항 현황과 러시아의 북극해 단일 물류 운영자 선정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IAL) 2016. 8. 1

1. 한중일의 현재 북극해항로(NSR) 운항 현황

1) 한중일 북극해항로 운항 개요 및 IAL 평가

- 2016년 7월27일 현재 북극해항로 통항신청 선박의 수는 522척으로, 2015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올해는 2015년 대비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운항이 증가하였음. 본 특집에서는 7월말까지 북극해항로 통항을 신청한 선박들 중에서 한국, 중국, 일본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 중국과 동남아에서 제작된 러시아 북극해 Yamal 프로젝트向 화물의 운송을 위한 북극해항로 통항이 급증하면서 네덜란드 선적 중량화물선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중량화물선이 NSR 중량화물 운송에 투입되고 있음. 우리나라, 중국과 일본의 해운회사 선박들이 북극해항로를 통항할 계획이며, 중국과 우리나라의 쇄빙연구선도 비슷한 시기에 북극해 지역 탐사에 나섰다.
- 한국의 경우 2012, 2013년에는 북유럽 노르딕 국가 해운회사의 내빙선박들이 한국 관련 수송을 주도하였으나, 올해에는 우리나라 선사들도 직접 NSR 운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 선박들(내빙선박이 아님)도 NSR 운항에 투입되기 시작했음. 중국의 경우, 국영선사 COSCO 내빙선박 3척이 계획대로 NSR 운항을 위해 항해 중에 있음.

2) 한국 관련 북극해항로 운항 사례

-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화물이 울산항에서 적재되어 사베타항을 통한 복합운송에

나섰으며, 우리나라 선사 선박이 인도네시아에서 중량화물을 선적하여 베링해를 통해 북극해항로 운항을 시작하였음. 한편 중국에서 출발하여 베링해를 통해 북극해항로를 운항하는 중량화물선이 부산항 외항에서 급유와 승무원 교대를 한 사례도 있음

○ 우리나라 제작 중량화물의 NSR 운송 사례 (NSR 경유 카자흐스탄 복합운송 등)

-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화물의 운송 사례는 Happy Dover, HHL Tokyo가 확인되고 있음.
- Happy Dover호(네덜란드 선적, Arc4)는 7월 15일 울산 온산항에서 철강제품 1,144톤(화학반응기 2기, 현대중공업 제작)을 선적한 후 7월 28일 현재 중국 천진에서 중량화물 선적중임. GE Tech에서 현대중공업에 발주했던 철강제품의 운송은 SLK KUKBO에서 담당하였으며, 울산항에서 항비 감면을 받았음.
한편 이 화물이 사베타항에 도착하면 바지선으로 환적되어 Ob강과 Irtysh강을 따라 운송되어 8월 25일 카자흐스탄의 Pavlodar 정유소로 운송될 것으로 알려져 있음.
- HHL Tokyo호(안티구아 선적, Arc4)는 6월 9일 마산항에서 보일러-기계류 589톤을 선적하고, 6월 13일 온산항에 도착하여 보일러-기계류 1,403톤을 선적한 후 6월 20일 온산항에서 출발하여 8월 7일 사베타항 도착 예정임

○ 우리나라 선사 주관 운송 사례

- Pan Ocean의 Sun Shine호(파나마 선적, Non Ice class)는 인도네시아 Kabil에서 화물을 선적하고 7월 20일 Kabil항을 출발하여 현재 천진항에서 하역 중이며, 2,300톤의 Yamal 플랜트를 운송할 것임. 최근 Pan Ocean의 Sun Rise호도 북극해항로 통항을 신청한 바 있음

○ 부산항의 북극해항로 관련 항만서비스 제공 사례

- 중국 천진항에서 출발한 Xia Zhi Yuan 6(중국 선적, ICE 1)호가 8월 1일 기준 부산 외항에서 급유중이며 베링해를 통해 사베타항으로 항해할 것으로 보이며, 상해항에서 출발한 Molengracht(네덜란드 선적 Arc4)호는 7월 25일 부산항 외항에서 선용품을 적재한 후 베링해로 출발하여 사베타항에 8월 10일 도착예정임.
- 중국 상해항에서 출발한 Dijkgracht(네덜란드 선적, Arc4)호는 7월 20일 부산항 외항에서 승무원 교대 후 베링해를 통해 운항중이며 8월 4일 사베타항에 도착할 예정임.
- 2013년 중국 COSCO Yong Sheng호도 부산항 외항에서 급유한 후 북극해항로 첫 항해에 나선 바 있음

3) 중국 관련 북극해항로 운항 사례

- 중국은 Yamal 프로젝트 관련 중량화물 제작 및 운송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 COSCO를 중심으로 북극해항로 운항실적을 축적하면서 장기적인 북극해항로 활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지속하고 있음.

○ 중국에서 제작된 Yamal 프로젝트 화물의 운송사례

- 중국에서 제작된 Yamal 프로젝트 화물이 지속적으로 사베타항으로 운송되고 있음.
- NSRA에 북극해항로 통항을 신청한 주요 선박들의 Yamal 프로젝트 화물운송 경로는 아래의 세 가지임.
- 첫 번째는 중국에서 화물을 선적하여 수에즈운하를 통과하여 사베타로 운송하는 것으로 Happy Delta호를 포함하여 모두 11척의 선박이 중국에서 출발하여 수에즈항로를 통해 사베타항으로 입항하였음
- 두 번째는 일반 중량화물선으로 운송된 화물을 북서유럽과 사베타간을 왕복운송하는 것으로 Happy Dynamic호를 포함하여 모두 7척의 선박들이 북서유럽 항구들과 사베타항을 왕복 운항하였음. 그 중에서 Audax호는 북극해항로 하절기 운항시즌에 맞춰 사베타항을 출발하여 북극해항로를 통해 천진항으로 항해중임
- 세 번째는 북극해항로 하절기 운항시즌에 맞춰 중국 항만에서 출발하여 베링해를 통해 북극해항로를 항해하여 사베타항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현재 Bigroll Bering 호를 포함하여 4척이 중국 항만을 출발하였으며 8월 초 사베타항에 도착할 예정임.

○ 중국 COSCO 선박의 북극해항로 운항 횟수 증대

- COSCO는 2015년 10월 대런 북극해항로 운항 세미나에서 2016년 왕복운송 1회와 편도운송 1회 실시 계획을 소개했었음. 중국 COSCO는 2016년의 북극해항로 운항을 계획하면서 지난 4월 COSCO에서 북극해항로 운항 주관 팀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 간의 세미나를 통하여 운항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모두 세 척의 선박이 북극해항로 통항을 준비하고 있거나 출발하였음.
- Yong Sheng(Arc4)호는 풍력설비와 기타 제품의 선적을 마치고 7월 16일 천진항을 출발하여, 북극해항로를 향해 항해중이며, 영국 글라스고우에 8월 21일 도착 예정이며, 이후 다시 북극해항로를 통하여 중국으로 항해할 것으로 보임
- TIAN XI(ICE 1)는 7월 30일 핀란드 라우마항에서 펄프를 적재한 후 출발했음. 북극해항로로 진입하여 중국으로 운항할 예정임.
- Xiang He Kou (ICE 1)은 6월 28일 칭다오를 출발하여, 지브롤터로 항해중임. 8월말에 Yamal 프로젝트의 천연가스 채굴 모듈을 싣고 사베타항으로 항해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기존 7월 20일부터 9월 1일 북극해항로 통항신청기간을 9월 1일부터 11월

15일로 변경하였으므로 북극해항로 통항이 지연될 것으로 보임



화물을 선적한 Yong Sheng , 2016년 7월 (출처: <http://m.21jingji.com/>)

- 한편 중국 Guangzhou Salvage의 Hua Yang Long(ICE 1)호는 6월 6일 중국 Penglai에서 출발하여 현재 바렌츠해를 향해중이며 7월 29일 사베타항에 도착했음

4) 일본 관련 북극해항로 운항 사례

- 일본 선사 선박 3척이 북극해항로를 통항할 것으로 예상됨.
- Federal Baffin(Saint Kitts and Nevis 선적, Doun Kisen사, Ice 2)호는 베링해Dudinka-카라해 방면 운항과 베링해-카라해 방면의 통과운송을 신청한 선박임. 현재 러시아 오토츠크해의 사크르스크에 도착해 있으며 화물을 선적한 후 북극해항로를 통항할 것으로 보임.
- Yamato(Panama선적, Hachiuma Steamship사, Non Ice class)호는 6월 19일 인도네시아 카빌을 출발한 후 7월 14일 수에즈 통과한 후 향해중이며 8월 4일 사베타항에 도착 예정임
- Yamatai(Panama선적, Hachiuma Steamship사, Non Ice class)호는 7월 26일 인도네시아에 입항하였으며, 최근 북극해항로 통항을 신청하였음

5) 한국과 중국의 쇄빙연구선 탐사 출발

- 중국의 설릉호가 7번째 북극탐험에 나섰으며, 7월 11일 상해항을 출발하여 7월 25일 북극권으로 진입하였음. 중국 연구자들은 미국과 프랑스의 연구팀과 공동으로 78일간

의 연구활동을 계획 중이며, 해양화학, 환경, 지리학, 지구물리학 및 해빙 이동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하며, 축치해와 동시베리아해 사이의 Mendeleev Ridge를 탐사예정임

- 우리나라의 아라온호는 7월 20일 인천항을 출발하여 7월 22일 부산항 외항에서 선용품을 공급받은 후 8월 2일 미국의 놀에 도착할 예정임. 이후 PAG(Pacific Arctic Group)의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7개 국가들과 공동으로 베링해, 동시베리아, 축치해에서 총 67일간 연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라함. 특히 동시베리아해의 대륙붕 탐사를 통해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여부 확인에 초점을 둔 연구수행 예정이라 함

2. 러시아의 북극해 단일 물류 운영자 선정

1) 개요

- 2016년 6월 러시아 국방부의 군수물류회사인 'Oboronlogistika'사가 러시아 북극해 운송의 단일 물류 운영자로 최종 선정되었음.
- 2016년 5월 중순 러시아 북극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국방부와 러시아교통부는 북극해 단일 물류 운영자(United logistics operator) 설립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토록 요구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러시아 국방부 산하 'Oboronlogistika'사가 단일 물류운영자로 선정이 되었음.
- 러시아 교통부 관련 'Arctic Transport Line' 구축 제안서를 제출하였던 Nikolay Pegin씨의 제안서는 채택되지 못했음 (참고: Pegin씨는 러시아 캄차트카개발회사 사장으로, 2015년 11월 해수부 주최 4회 울산 북극해항로 국제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여한 바 있음)
- 2016년 6월 중순 20차 샹트 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아르한겔스크 주정부와 'Oboronlogistika'사간에 협정협정이 체결되었음. 동 협정에 따르면, 동사는 북극에서의 화물공급위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함. 또한, 'Oboronlogistika'사 필라토프사장은 러시아 국방부가 북극해항로 상의 단일의 효율정책과 작업계획을 용이케 하기 위해 유관 부처들의 노력을 조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Oboronlogistika'사 개요

- 2011년 설립된 러시아국방부 산하, 군수 물류 국영회사이며, 2016년 3월에는 공식적으로 해운회사 자격을 취득함.

2) 러시아 국방부 주도 컨소시엄 설립

- 북극과 쿠릴해에서의 러시아 국방부 물류수요의 효율적인 수송보장을 위한 시스템 형성 결정이 2016년 4월에 채택되었음. 컨소시엄의 주된 과제는 수송서비스 관련

단일의 효율정책을 수립하는 것임. 컨소시엄에는 'Oboronlogistika' 외에, Sovfracht, FESCO사 참여 예정임.

3) '북극해 해상운송관리센터' 설립 예정

- 북극존에서의 러시아 국방부 관련 물류 보장을 위한 '북서부 해상화물운송관리센터'가 아르한겔스크에 설립될 예정이라 함. (www.tass.ru. 2016.7.15.)
- 본부는 모스크바에 위치하며, 극동해상운송관리센터는 블라디보스톡에 설립될 예정임

4) 러시아 북극해 해상운송에 참여할 '단일 물류 운영자' 선정의 의의

- 러시아 교통부에서 제안한 '단일 수송-물류 운영자'계획 (제안자: Pegin)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러시아 북극존의 산업 수송 외에, 군수용 화물운송이 증대됨에 따라 군수회사가 선정된 것으로 보임.
- 현재 러시아 북극해의 Yamal 지역으로의 수송물동량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동시에, 러시아의 북극해지역에 대한 군사-안보 전략이 강화되면서, 북극해 해안선의 신규 군사기지 증설 및 보강 등 군수용 물류 증대가 예상됨.
- 군수회사인 'Oboronlogistika'사가 단일 물류 운영자로 선정됨에 따라, 상업적 관점의 NSR 관리 외에, 군사적 관점의 NSR 운영/관리가 예상됨.
-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북극해항로 경유 유럽과 아시아간 국제통과수송에 새로운 변수가 출현한 셈이어서, 동사의 추후 활동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이 필요함.

출처: www.thebarentsobserver.com, 2016.7.7., www.rus-shipping.ru 2016.7.15.

www.rcinet.ca 2016.7.25,7.28, m.korea.net 2016.7.26., www.maritime-executive.com 2016.7.27

www.scmp.com 2016.7.20., www.marinetraffic.com, www.sovfracht.ru 2016.7.28

www.portbusan.go.kr, www.nsra.ru,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IAL)

<북극해항로 운항>

○ 북극해항로 선박운항 안전 강화

▶ 행정적 위법행위 법전 제 23.10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kremlin.ru가 전함. 이로써, 북극해항로 해역의 교통 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항행의 안전을 보장하게 됨. 동 법령은 동 법전 제 11.7에서 정하는, 특히, 북극해항로 해역 운항규칙 위반과 관련된, 행정적 위법행위 사건 심리에 관한 전권을 국경수비기관에 부여하고 있음.

연방법은 국가 두마에 의해 금년 6월 10에 채택되었고, 연방회의에 의해 6월 15일에 승인되었음.

출처:<http://ru.arctic.ru/> 2016.06.27.

○ 러시아 'FESCO' 사, 축치항 시즌 운송 개시

▶ 러 극동해운회사인 'FESCO'사가 아나디르港 직항라인 서비스의 일환으로 아나디르港(베링해 북부 항구)과 에그베키노트港(베링해 북부 항구)으로 매년 시행하는 시즌 운송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회사 공보실이 전함. 2016-항행기간 첫 번째 선박의 선적은 6월 14일 블라디보스톡항에서 이뤄질 것임.

대 고객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동 정기선 운임을 작년 대비 컨테이너화물, 일반화물, 승용차 운임의 10%를 인하함. 항구간 선박운송으로 연결되고, 철도·내수운송의 복합운송으로 바로 연결되는 모든 종류의 건화물과 냉동 COC·SOC 컨테이너 화물, 일반화물들이 동 서비스로 운송됨. 동 서비스는 북부지방 공급의 일환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있음.

FESCO 사는 항만, 철도, 통합물류서비스 분야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최대 민간 운송물류회사 중 하나임. 컨테이너 약 36천 개, 선박 25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용선계약으로 쇄빙선 4척을 운용하고 있음.

출처:<http://portnews.ru/> 2016.06.10.

○ 북극 해상운송관리센터, 아르한겔스크에 창설돼

▶ 북극해상운송관리센터는 2017년부터 국방부 단일의 운송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하게 될 'Oboronlogistika'사 지사 내에 조성될 것이라고 주정부 공보실에서 알렸다고 REGNUM가 전함.

동 회사와의 협정서 조인식은 금년 6월 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에서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북극 화물공급 시스템의 조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

2017년부터 우리 회사는 국방부의 단일운송회사로서 운용될 준비가 되어있음. 아르한겔스크주에 현대적인 생산물류복합단지 조성프로젝트도 계획 중임. 복합단지 설립 부지의 요건은 매우 까다롭지만, 동 지역에서는 모든 요건이 준수될 수 있다고 안톤 필라토프 회사 대표가 말함. 아르한겔스크항은 서비스 수준, 생산능력, 인력 잠재력 면에서 다른 항구에 뒤지지 않는다고 이고르 오를로프 주지사가 말함.

출처:<http://logistic.ru/> 2016.07.11.

○ 북극해항로 쇄빙선 및 빙해역 도선 서비스 지불 절차 법안 승인

▶ 러시아정부가 «러시아 상선법 제 51조 북극해항로 해역 쇄빙선 에스코트 서비스 및 빙해역 도선사 서비스 지불 절차 규정 부분 변경에 관한» 연방 법안을 6월 2일 회의에서 승인했으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연방 두마에 제출한다고 6월 3일에 정부가 전함.

법안은 검토되어, 연방정부 법안 활동위원회 회의에서 5월 10일에 이미 승인되었음.

법안은 북극해항로 해역 군함의 쇄빙선 서비스 및 빙해역 도선사 서비스 지불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이것으로 연방법의 결함을 없애고, 이 서비스 효율 규모를 정하는 규범적 법령을 적용할 수 있게 됨. 연방 법안은 북극해항로 종합 개발안에 따라서 러시아 교통부가 준비함. 상선법 제 51조 5항은 군함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것은 제 3조 2항에 근거하여 상선법으로 정해진 규칙들이, 직접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군함, 군대 보조선박 및 국가 소유 또는 정부 비영리 기관을 위해 운영되는 기타 선박들(이하- 군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 .

비록 사실상 북극해항로 해역 쇄빙선 에스코트 서비스 요금과 빙해역 도선사 서비스 요금 지불을 위해서 군함들이 상선법 제 51조 5항에 의거하여 규정된 효율을 이미 이용하고 있지만. 북극해항로 상에 군함의 운항이 더 증가하고 있음. 북극해항로로 러시아 해군의 전투함과 보조 선박이 지나감.

2015년 7월 26일 푸틴은 러시아 해양독트린의 새로 승인된 개정판을 검토했음. 드미트리 로고진은 증가하는 NSR의 중요성과 2.2백만 배럴/일 석유의 잠재력이 있는 북극 대륙붕의 유용광물에 관해 보고함. 2012년 7월 푸틴이 NSR 항로국 창설법에 서명함.

출처:<http://arctic.gov.ru/> 2016.06.04.

<북극해 인프라>

○ 야말반도 "Nadym – Salexard" 도로 155km 개통

▶ 야말네네츠키 자치구의 동서를 연중내내 연결하는 자동차도로 "Nadym – Salexard" 중 총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155km 구간이 개통되었다고 주지사 공보실 직원이 리아 노보스찌지에 전함.

자동차도로 "Nadym – Salexard"은 총 6 구간으로 나뉘서 건설 중이며, 이 중 2구간(90km 아스팔트콘크리트, 64km-쇄석) 155km는 이미 개통되었으며 전 구간 개통은 2020년으로 계획 중이라고 전함.

동 건설은 기후와 혹독한 환경조건 때문에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드는 공사지만, 국가 운송물류망(북위도 교통망)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러시아 북극지역발전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드미트리 코빌킨 야말 주지사가 말함.

출처: <http://ria.ru/> 2016.07.11.

○ 러 연방우주청, 북극 인공위성궤도 배치 계획 제출

▶ 러시아연방우주청이 북극 및 세계 대양 관찰용 인공위성 궤도그룹의 배치 계획을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 겸 국가북극개발위원회 위원장이 말함.

러시아연방우주청은 세계 대양과 북극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단계별 위성궤도 그룹 배치 계획을 분석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국가위원회 회의에서 로고진이 말함.

출처: <https://russian.rt.com/> 2016.06.09

○ 로고진: 교통부, 북극 교통정보시스템 컨셉 공표

▶ 러시아 교통부가 금년 4분기에 북극운 운수산업 정보시스템의 구상안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목요일 국가북극개발위원회 회의에서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가 전함.

우리 부서는 북극운 운수산업 단일 안전정보통신시스템 구축에 관한 교통부의 제안을 검토했음. 교통부가 금년 4분기에 관련 구상안 작업을 완료할 계획임.

동 구상안에 관한 논의는 오늘 이미 시작되었으며 11월 국가위원회 간부회의에서 지속될 것임. 하지만 교통부가 자신들의 안을 공개할 때, 이미 이 두 부서의 통일된 방법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금 통신-메스컴부와 국방부를 이 작업에 필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총리가 말함.

출처: <http://ria.ru/> 2016.06.09.

○ 북극권 발전 법률안이 가을에 준비될 것임

▶ 러시아 경제발전부가 연방회의에 러시아 북극권 발전에 관한 법률의 구상안을 제출하여, 5월에 남·북극 위원회에서 동 콘셉트가 검토되었으며, 원칙적으로는 승인되었음. 동 법률의 본문은 가을에 제출될 것이라고 바체슬라브 쉬띠로프 연방회의 산하 남·북극위원회 위원장 겸 야쿠트 공화국 상원의원이 오늘 전함.

북극 개발프로그램은 완전하지 않아서, 사회적 부분, 비즈니스관련 특별 요건, 북부지역 소수민족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 및 교통망과 관련된 장을 포함한 기타 장들이 표시된 이 법률이 필요하다고 의원이 말함.

동 법률로 북극 지역의 기준이 정해질 것임. 아쿠티야, 카렐리아 공화국, 아르한겔스크주는 연방회의와 경제발전부의 실무진 공동회의에 자신들의 근거를 이미 제출하여, 카렐리아 공화국의 3지역과 아쿠티야의 8지역을 북극권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Interfax가 전함.

출처: <http://www.arctic-info.ru/> 2016.06.17.

<선박>

○ 원자력쇄빙선 'Arktika'호, 2018년부터 '야말 LNG'프로젝트에 투입

▶ 상트페테르부르크 발틱조선소에서 진수된 원자로 2기가 탑재된 원자력 쇄빙선 'Arktika'호의 18백만 톤 LNG가스 반출계약이 체결되어, 2018년에는 '야말 LNG'프로젝트의 LNG가스 의 운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세르게이 키리엔코 '로스아톰'사 사장이 말했다고 리아 노보스찌가 전함.

쇄빙선 'Arktika'호는 러시아 원자력 쇄빙선단의 업그레이드를 목적으로 건조된 3척 중 1척임. 현재 운용중인 쇄빙선 3척은 2020년에 수명이 다하게 됨. 이들의 대체로 'Arktika' 타입의 원자력 쇄빙선 3척, 선도선 'Arktika'호, 시리즈선 'Sibir'호와 'Ural'호가 투입되어야 함. 인도 시기는 각각 2017년,

2019년, 2020년임. 동 쇠빙선들은 '로스아톰플로트'사('로스아톰'사 계열)의 발주로 모두 발틱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음.

출처:<http://tass.ru/> 2016.6.16.

○ VTB와 'Sovcomflot'사, \$26천만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체결

▶ 대외무역은행(VTB)과 'Sovcomflot'사 간에 \$260백만 규모의 13년 장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이 성립되어, 6월 17일 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에서 세르게이 프랑크 'Sovcomflot' 사장과 안드레이 코스틴 'VTB' 은행 대표가 계약서에 조인함.

동 계약은 '야말 LNG'프로젝트의 북극 가스운반선 건조를 위한 자금 용자를 내용으로 함. 선박 인도는 2017년 1분기로 예정되어 있음.

세르게이 프랑크 'Sovcomflot' 사장은 세계 유일의 혁신적인 선박건조 완수를 위해 유일 무일한 거래를 체결했다고 밝힘.

출처:<http://www.vtb.ru/> 2016.06.17.

○ 중국 COSCOL, 중량화물선 3척을 Ice Class 다목적선으로 변경

▶ 중국 COSCOL이 상하이조선소와의 기존 3대의 선박발주계약을 중량화물선에서 Ice Class 다목적선으로 변경하였음. 3척의 36,000 DWT Ice Class 다목적선을 각각 미화 약 3,600만 달러로 2017년 10월 12월 사이에 인도될 예정임

2척의 Ice Class 다목적선은 COSCOL의 상하이조선소와의 28,000 DWT중량화물선 기존 계획으로부터 전환될 것이며, 중량화물선 건조계약은 COSCOL에 의해 주문된 6척 중의 일부임.

세 번째 Ice Class 다목적선은 상하이조선소에 COSCOL 자회사에 의해 이전에 주문되었던 28,000 DWT 중량화물선의 또 다른 기존계약으로부터 전환될 것임.

COSCOL은 Ice Class 다목적선으로의 이동은 2016년 선박건조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선단구조와 전반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출처:<http://www.seatrade-maritime.com/> 2016.06.29.

○ 로고진: 프리모리에 조선소 통해 북극 계획들 실현될 것

▶ 프리모리에 지역에 조선소를 건설하는 것은 국가 북극개발계획 실현에 큰 획을 긋는 프로젝트라고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가 볼쇼이 카멘 '즈베즈다' 조선소 시찰 후 회의에서 말함.

특히 보조 선박인 북극 클래스 가스운반선 건조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전에 한국과 다른 국가의 조선소들로 흘러간 많은 자금을 더 이상 해외로 유출시키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로고진 부총리가 말함.

대통령의 위촉으로 '로스네프티'사와 '가스프롬뱅크'의 컨소시엄인 'Sovremennye Texnologii Sudostroeniya'사가 극동지역 '극동 조선·선박수리'사 기지 내에 산업조선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그 핵심이 볼쇼이 카멘 지역의 신규 조선복합단지인 'Zvezda'임.

2월 1일 러시아연방정부가 연해주 3번째 선도개발지역인 '볼쇼이 카멘' 조성을 승인함.

출처:<http://arctic.gov.ru/2016.06.22>.

<자원개발>

○ 돈스코이, 북극대륙붕 개발을 위한 민간기업의 활동 허용

▶ 앞으로 북극 대륙붕 개발에 민간 석유가스기업들이 허용될 것이라고 세르게이 돈스코이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이 6월 4일 공표했다고 Interfax가 전함.

장기적 전망에서, 프로젝트들이 더 완성된 단계에 접어들면, 민간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임. 문은 닫혀있지 않음.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대륙붕에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장관이 언급함.

얼마 전 알렉산드르 흐로보닌 부총리실에서 있던 회의에서 민간기업뿐만이 아닌 대륙붕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작업에 활력을 줄 경제적 장치들이 논의되었으며, 흥미로운 제안들이 있었음. 1개월 간 이 제안들을 상세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음. 지질탐사작업 지원부분이 우선적임.

특히, 외부적 제한으로 국가적 지원 없이는 대륙붕에서 작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만큼, 연내에 명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돈스코이 장관이 말함.

출처:<http://ru.arctic.ru/> 2016.06.06.

○ 러시아 북극해 최북단의 광산 및 가공공장, 2021년 가동 예정

▶ 노바야 제믈랴 제도 파블로프스코예 매장지의 납아연 광물을 가공하는 러시아 최북단 북극 최대 광산이 2021년에 가동될 계획이라고 국영기업 '로스아톰'사의 우라늄 홀딩의 2015년 연차보고에서 전함.

동 매장지의 카테고리 B+C1+C2의 원시부존량은 최소 아연 2.48백만톤, 납 549천톤, 은 1194톤임. 현지 엔지니어링 조사, 설계 등 기타 필수 작업 완료(2019년) 후 동 콤비나트 시공이 계획되어 있으며, 가동은 2012년으로, 납·아연 광석의 채굴·가공 후 납·아연 콘센트레이트를 최종 판매할 계획이라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음.

동 콤비나트 건설프로젝트의 시공사는 '빠르바야 고르나루드나야'사(우라늄 홀딩 'ARMZ'사 계열)이며, 동 매장지 탐사 단계의 총 지질조사 시행사는 'Rusburmash'사('ARMZ' 계열사)로 정해짐.

출처: <http://ria.ru/> 2016.06.27.

○ 신설 'Arctic LNG 2'의 생산전략, 연내 결정

▶ '노바텍'사가 독일 'Linde'사와 공동으로 금년 안에 자사의 신규 천연가스 액화공장 'Arktik LNG 2'의 생산규모(라인 당 연 6백만 톤), 라이선스, 장비 등 생산전략을 세울 계획이라고 레오니드 미켈슨

사장이 기자에게 전함.

'Linde'사와 공동으로 많은 작업을 완료했음. 동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컨셉 선정 및 장비의 현지화를 이뤄야 함. 양사는 향후 유망한 LNG프로젝트들을 시행할 엔지니어링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중임. 동 공장은 세계 최저가 LNG가스(톤당)를 생산하는 LNG공장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미켈슨 사장이 말함.

출처:<http://www.interfax.ru/> 2016.06.17.

○ 중국 연구탐사선, 북극으로 출항

▶중국 과학연구선 "쉐롱(Xuelong)"호가 128명을 싣고 7번째 북극 과학탐사를 위해 월요일 상하이항에서 출항했다고 "Russian.News.Cn"가 전함. 78일 동안 동 선박은 1만 해리 이상을 항해하며, 베링해, 베링해협, 축치해, 축치 해산(seamount), 캐나다 해분 지역들 및, 그리고 멘델레예프 해령 지역에서는 최초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동 탐사는 북극의 환경과 기후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북극의 수문과정 및 기상현상과 해양화학, 생물학, 생태학, 지질학, 지구물리학, 동역학, 열역학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중국 국가해양국 극지탐사 사무국 부사무장 겸 제 7차 중국 북극과학탐사대 대장 샤 리밍이 전함.

동 연구선에는 해빙 모니터링, 비상사태 대응 및 빙표면 임무 수행용 헬리콥터 2대가 탑재돼 있음. 중국 과학자들과의 협력을 위해 미국, 프랑스 및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이 동 탐사에 초청되었음. 동 선박은 9월 26일에 귀항할 계획임.

출처:<http://www.korabel.ru/> 2016.07.11.

<기후변화>

○ 북극 해빙 완전히 자취를 감출 수 있어

▶금년 또는 내년에 십 만년 만에 처음으로 북극에서 해빙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캠브리지 대학 피터 워드햄스 교수의 연구를 인용해서 The Independent가 전함. 미국 국립설빙자료센터 위성데이터에 의하면, 금년 6월 1일 북극 해빙면적이 11.1 백만 제곱킬로미터까지 감소되었고, 최근 30년 동안의 평균보다 1.5백만 제곱킬로미터(영국의 6배)가 적음.

만약 해빙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금년 해빙면적이 기록적으로 작을 확률이 매우 높아, 백만 제곱킬로미터가 안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이 아니라면 내년이 될 것임.

북극 중심지역과 북극에서 해빙이 사라지고, 캐나다 북극해안의 섬들 사이에 해빙이 많이 남게 될 것임. 그 결과, 세계 기온이 향후 5년간 평균 0.6°C 상승할 것이라고 워드햄스 교수가 말함.

몇몇 학자들은 워드햄스 교수의 예측에 회의적임. 특히, 러트거스 대학 제니퍼 프렌시스 교수는 북극 해빙은 2030-2050년 이전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 그럼에도 기록적인 북극 해빙면적의 감소는 위험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금년 9월에 신기록이 세워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음.

출처: <http://ria.ru/> 2016.06.05.

<국제협력>

○ 러시아 외무부: 북극은 북극국가들만의 협력무대가 되서는 안됨

▶ 러시아는 북극국가들뿐만 아니라 NGO 단체들 및 국제 기구들이 북극의 안정적 개발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블라디미르 바르빈 북극 국제협력 외무부 특사가 올란-우데에서 말함.

러시아는 북극이 북극국가들 만의 협력 무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여김. 북극에서의 많은 도전들에는 초국경적인 변화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제 XII회 북극지역 의원 컨퍼런스에서 발언함. 아시아와 유럽의 배출가스가 북극 자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함.

2017년에 16.5백만톤 규모의 천연액화가스 생산공장이 가동되어야 함. 동 공장의 가동 후 북극해항로의 화물 운송량이 수 배 증가할 것이며, 주 시장은 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말함. 생산된 제품을 해상을 통해 해외로 운송하는 다른 거대 프로젝트들이 향후 약 2년 내에 시행될 것임. 북극해항로를 경유하는 운송량의 증가는 유럽-아시아 간 통과화물 공급을 목적으로 동 항로를 이용하는 것에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이와 관련해서, 안전운항 지원, 항행 및 도선사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속성의 향상, 쇄빙선 개발 및 항만 인프라의 현대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이 시행 중에 있음. 북극 국가들이 이 지역의 사태에 대해 그리고 북극국가들과의 양자간 관계 및 북극이사회 라인간의 관계 강화에 힘써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데에서 러시아는 출발하고 있다고 특사가 덧붙임.

출처:<http://arctic.gov.ru/> 2016.06.15.

○ 북극이사회 Field Meeting, 쇄빙선 '승전 50주년'호에서 진행

▶ 북극이사회 회의가 8월 말에 Field meeting형식으로 개최된다고 예브게니 루키야노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사무국장이 토요일에 말함. 러시아는 미국과 북극 자원에 관해 합의를 도출할 준비가 되어있음.

러시아 안전보장회의는 북극지역과 북극 현안들을 당연히 우선순위 중 하나로 보고 있음. 이 지역 국제협력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특히, 제 6회 연례회의를 8월 말에 쇄빙선 '승전 50주년'호의 선상에서 Field meeting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임. 아나디르港에서 페벡港까지 항해할 것임. 북극이사회 회원국, 옵서버 국가들, 과학단체 대표들을 초청한다고 루키야노프가 2016년 썬트 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에서 기자들에게 말함.

출처: <http://ria.ru/> 2016.06.18.

○ 바렌츠해 교통부장관회의, 아르한겔스크에서 개최

▶바렌츠, 유럽, 북극지역회의(BEAC)의 교통부장관들이 아르한겔스크에서 만남.

동 회의에 러시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EU 국가 대표들이 참석함. 동 회의에서 러시아 2030' 교통전략 시행의 일환으로 러시아정부가 북극지역들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들의 시행에 관한 순차적인 행보를 취했다고 막심 소콜로프 러시아 교통부장관이 전함.

우선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유망프로젝트인 «Belkomur»이며, 동 프로젝트의 기반은 아르한겔스크 심해항과 연계되어 운영될 아르한겔스크 지역을 통과하는 철로임. 또한 러시아정부는 작년 북극해항로 종합 개발안을 승인했음. 이러한 조치들은 향후 10년 동안 북극해 연안지역과 대륙붕에서 채굴된 탄화수소자원의 안정적인 통과운송 및 공급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장관이 말함.

동 회의에서 유럽 북부지역의 운송인프라 개발에 대해 논의함. 동-서를 연결하는 편리한 항공교통을 조성해야함. Syktyvkar(코미공화국 도시)-Kotlas(아르한겔스크주 도시)-아르한겔스크 노선으로 2014년 9월부터 정기 항공기가 취항하고 있고, 트롬쇠(노르웨이 트롬스주 도시)-롤리오(스웨덴 북부 항구도시)-오울루(핀란드 서부도시) 노선 정기 항공기가 2015년 1월부터 운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아르한겔스크-무르만스크-트롬쇠 노선을 복구시켜 편리한 환승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고르 오를로프 아르한겔스크주 주지사가 말함.

출처:<http://www.arctic-info.ru/> 2016.06.22.

<북극정책>

○ EU 외교장관회의, 통합 북극정책 의제에 포함

▶유럽연합 회의가 6월 20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외교장관회의의 의제안을 공표함. 주요 안건으로 북극 지역에 대한 통합된 EU 정책이 포함됨. 코뮌니케에서 북극관련 결정이 채택될 것으로 전함.

출처:<http://ru.arctic.ru/> 2016.06.14.

○ 프랑스, 자국의 북극전략 소개

▶북극지역에 대한 자국의 경제적, 과학적, 환경적, 정치적 이해를 규정해 주는 북극 국가전략 설명회(«La Feuille de route nationale sur l'Arctique»)가 6월 14일에 있었음. 동 문서의 작업은 2013년 미셸 로카르 남북극 국제협상 대사의 주도하에 여러 부서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 시작되었음.

동 문서에서, 극권(극지대)에 대한 자국의 이해에 근거를 부여하며, 프랑스 외무부는 프랑스가 북극관련 학술지에서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연구들을 오래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고 말함. 프랑스는 1963년에 세계 최초로 스피츠베르겐 제도에 과학기지를 설치했음. 2000년부터 프랑스는 1996년 오타와 선언에 의해 8개국에 의해 창설된 북극이사회 업무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음.

프랑스는 북극을 시범적인 친환경 기술들의 개발을 위한 지역으로 보고 있음.

경제적 이익에 관해 말하며, 동 전략의 저자들은 러시아 연안을 따라 지나는 북극해항로는 로테르담과 요코하마 간 거리를 수에즈 운하경유 대비 40% 단축시켜주지만, 상업노선으로의 이용은 많은 위험요인들을 동반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와 동시에, 천연자원(세계 석유매장량의 13%와 가스매장량의 30%) 개발프로젝트들은 화물운송을 증가시킬 것임. 이 외에도, 관광객의 유입과 크루즈 선박들이 북극으로 올 것으로 기대됨.

동 문서에는 북극개발 시 국가협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담겨있으며, 프랑스가 우선적으로 EU 국가들(덴마크, 스위스, 핀란드)과 NATO 회원국(캐나다, 미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들과의 협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운항 자유와 통항권을 비롯한 국제법의 원칙을 수호하는 EU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출처:<http://arctic.gov.ru/> 2016.06.24.

<북극해 관광>

○ 일본 크루즈선 'ASUKA II'호, 캄차트카에 입항

▶6월 13일 승객 770명과 선원 470명이 탄 일본 대형크루즈선 'ASUKA II'호가 캄차트카 아바친스키 만에 입항하여 하루 동안 정박했음.

동 크루즈선에는 승객용 갑판 8층을 포함 총 10개의 갑판이 있으며, 레스토랑, 2개의 수영장, 8개의 바, 카지노, 휘트니스센터, 277석의 극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음. 정박 기간동안 일본관광객들이 통합 향토박물관, 전망대, 원주민 주거지 '카이느란' 등 페트로파블로프스크-캄차트키 시의 유적지를 방문했다고 市 관광·대외협력부에서 전함.

7월 1일~5일에 크루즈선 'Silver Discoverer'이 동 도시에 이어서 입항할 예정임.

출처: www.rus-shipping.ru 2016.06.14.

○ 러시아 관광부: 북극관광 수익이 유용광물수익과 맞먹을 것

▶북극관광의 전망은 유용광물채굴과 비등한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올레그 사포노프 연방관광부 장관이 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된 북극 국제협력컨퍼런스에서 발언함. 북극의 역사·문화 및 자연·기후적 특징은 여러 관광 상품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묶어 제공할 수 있게 한다고 장관이 말함.

북극관광은 러시아 북부지방 경제의 중요한 부문이 되어야 하며, 유용광물채굴 수익과 맞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관광부 장관이 말함.

러시아의 북극은 관광객에게 순록 썰매, 개 썰매, 스포츠관광, 익스트림 관광, 친환경 관광, 사파리관광 등 이국적인 휴식을 제공할 수 있음. 극지방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 명절, 의식은 여행객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여김.

북극관광의 전망은 국제적인 경험과 프란츠요제프 제도의 방문 시범프로젝트에서 판단할 수 있음.

이 지역 방문객은 그리 많지 않지만,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있음. 2014년에 790명의 관광객, 2015년에는 46개국에서 약 13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함.

이것은 매우 고가의 관광 상품이지만 매우 인기가 있음. 이 분야에 관한 신규 안을 개발이 해야 함. 이 지역 관광객 수용 잠재력은 연 약 8만 명이지만, 이 목표 달성에는 운송과 국경통과 규칙 분야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함.

출처:<http://tass.ru/> 2016.06.18.